

# 휴먼서비스 전공분야 대학생의 죽음태도 유형\*

## - Q 방법론적 접근 -

조 계 화<sup>1)</sup> · 이 현 지<sup>2)</sup> · 이 윤 주<sup>3)</sup>

### 서 론

#### 연구의 필요성

현대 사회의 젊음추구와 진보지향성은 인간적 삶의 전체성을 간과하고 있다. Well-being이라는 삶의 집착과 죽음을 실패로 보는 시대적 사조는 현대교육의 난제로서 쉽게 간과될 성질의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교육은 본질적으로 건강하고 건전한 가치를 지향하는 창조적 활동이므로, 삶과 죽음을 인간 경험의 총체적 시각에서 보는 죽음의 인간화를 통해 개인과 사회 공동체의 가치와 연대성 구축의 바탕을 마련할 책임이 있다(Choi, 1996).

인간의 죽음에 대한 태도는 시대와 사회 문화권, 개인의 가치관과 철학, 삶의 경험과 태도의 영향을 받는다. 비록 완전한 죽음은 누구나 한번 밖에 경험하지 않지만 부분적인 죽음은 삶의 과정에서 여러 차례 경험한다. 즉 죽음이란 실제 생활에서의 어떠한 상실감과 그로인한 두려움이 삶의 부정적이면인 죽음에 대한 불안이나 공포적 태도로 바뀌어 나타날 수 있기에 결국 한계상황 하에서의 죽음의지는 삶의 의지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죽음에 대한 인식과 이해는 삶의 본질을 이해함에 있어 중요한 척도가 된다(Chung & Kim, 1991).

청년 후기의 발달단계에 속하는 20대 초반의 대학생들은 부모로부터의 자율, 내면화된 도덕성, 직업선택 등의 발달과

업을 이루고자 자기의 본질적 특성에 관한 질문과 자기정체감을 확립하고자 하나 이에 대한 의미를 발견하지 못할 때 정체 혼미에 빠지기 쉽고 자신에 대해 불만족하며 자살 등의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의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대학생들의 죽음에 대한 태도를 알아보고 죽음에 대한 바른 인식과 이해를 고취시키는 죽음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된다(Kim, 2002).

본 연구에서는 인간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역으로 생의 시작부터 종말까지 인간 삶의 질을 증진시키는 목적을 가진 학문영역인 휴먼서비스 전공분야 대학생을 연구대상으로 선택하였다. 특히 출생에서 죽음까지 변화가 부단한 인간을 가장 가까이에서 조력하는 직종을 선택한 간호학, 교육학, 사회복지학도들은 인간의 삶은 물론 인간의 죽음에 대한 깊은 공감과 죽음의 불가피성을 수용하는 치유자로서의 자세가 요구된다. 따라서 휴먼서비스 전공분야 학생들이 각자 삶의 뜻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고 자기 삶을 사랑하며 가치있는 것으로 창조하고 나아가 죽음을 앞두고 절망하는 대상자를 돕는데 절실히 요구되는 인성적 자질을 갖추도록 돕기 위해서도 죽음에 대한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Choi, 1996).

그러나 이들은 현대의학이나 과학의 발달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자기성취에 큰 비중을 두고 있어 죽음이라는 문제를 용납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 또한 성인초기의 발달단계에 해당되는 젊은 학생으로서는 삶과 죽음에 관한 지식과 체험이 부족하므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학문적 대책과 제도적 장치가 요구된다. 임종과 죽음에 관하여 교육을 충분히 받지

주요어 : 휴먼서비스, 죽음, 태도, Q 방법론

\* 이 논문은 2004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KRF-2004-076-E00006).

- 1) 대구가톨릭대학교의과대학 간호학과 부교수
  - 2) 대구가톨릭대학교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과 전임강사
  - 3) 대구가톨릭대학교사범대학 교육학과 조교수
- 투고일: 2005년 2월 23일 심사완료일: 2005년 4월 15일

못한 간호사는 임종환자와 가족의 신체적, 정서적, 영적 요구를 이해하기가 어렵고, 이러한 요구들에 반응하기 위해 현존하는 임상지식과 표준을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충분한 소양을 갖춘 전문인으로서 실패한 것으로 나타난다(Mallory, 2003).

죽음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죽음이 삶에 대하여 갖는 의미를 내면화해야 하는 필요성은 곧 죽음 교육이 삶을 교육한다는 의미이자 인간교육을 고민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현대 교육이 당면한 여러 쟁점들, 즉 수명연장 기술로 인한 임종치치 문제, 사형, 낙태에 관한 윤리성, 인권상실, 자살예방, 죽음관련 위기대처능력, 매체 활용 시 죽음의 올바른 전달과 수용 등의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과 방향 모색은 현 시대의 사회적 필요성에 부응하는 유용한 작업이 될 것이다(Woo, 1998).

최근 죽음과 관련된 교육과정에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학생들을 위한 적절한 교육과 임상경험, 죽음에 관한 학생들의 지식, 기술, 태도의 사정이 아직도 제한적이다(von Gunten, 1996). 현장실습에서도 생명연장을 지적하는 임상적, 심리사회적 요인들의 사정과 관리에 관한 체계적 준비가 미비하며, 의사소통 기술에 대한 관심부족과 경청술을 포함한 의사결정의 교환은 죽음교육의 약점으로 남아있다.

죽음에 대한 연구는 연구분야, 연구자의 성향에 따라 연구 방법이나 연구대상자가 상이할 수 있다. 죽음의식 및 태도에 관한 국내연구의 대부분이 질문지법과 면담법을 이용하였으며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다소 있으나(Beak, Lee, & Kim, 2001; Kim & Lim, 2002) 인간을 상대로 전문직을 수행하게 될 다학제간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죽음에 관한 국외 연구들의 경우, 이미 임종과 죽음교육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나아가 교과과정 개발과 죽음교육의 도전적인 영역에 관한 연구로 방향설정을 하고 있다. 교육과정에 관련된 연구로는 학생들을 위한 제도화된 죽음교육 프로그램의 역할에 관해 검토한 연구(Kingma, 1994)와, 현존하는 간호교육 과정 안에 죽음교육의 효과적인 통합을 위한 지식, 기술, 자원들에 관한 의견제공(Matzo, Sherman, Penn, & Ferrell, 2003)과 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통해 죽음에 관한 태도와 요인을 밝혀 교육과정 개발로 연결시킨 연구(Matzo, Sherman, Lo, Egan, Grant, & Rhome, 2003) 등이 있다.

죽음교육의 다학제적 목표설정을 강조한 연구로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층면담과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통해 임종교육에 관한 사려깊고 통합적인 교과내용 제안을 한 연구(Wear, 2002)가 있으며, 건강교육과 죽음교육의 관계를 파악한 결과, 일반 건강교육에 관한 책 중 약 2/3가 암과 연관된 통증, 스트레스, 안락사, 장기이식 등 죽음과 관련된 현상을 다루고 있어 죽음교육의 통합적, 다학제적인 접근을 위한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Crase, 1993).

이상의 국 내,외 죽음관련 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현 시대적 변화와 사회적 요구에 비추어 죽음교육에 관한 필요성과 인지도는 높은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대학의 효율적 교육환경과 우리 문화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죽음관련 교과내용의 개발이 시급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자들은 임종 현장의 문제점들을 극복하도록 조력하기 위해, 간호학, 교육학, 사회복지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학제간 죽음태도를 파악하여 죽음에 대한 보다 통합적이고 긍정적인 관점을 획득하여 삶의 구체적 목적을 설정할 수 있는 건강한 죽음 태도 형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한편 본 연구를 통해 나타날 서로 다른 유형의 대학생들의 죽음태도의 특징들은 죽음에 대한 각 유형의 주관성을 반영하여 효과적인 임종간호 교육내용 및 기준을 확립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되어질 것이며 궁극적으로 학생들의 임종간호 수행능력을 향상시키는데 간호학적 의의를 예측할 수 있다.

##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Q방법론을 적용하여 휴먼서비스 전공분야 대학생의 죽음에 관한 주관적 인식유형과 그 유형의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다학제간 대학생들의 죽음에 대한 태도를 파악하고, 교육과정에서 죽음학 교과목 개발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하며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 휴먼서비스 전공분야 대학생의 죽음에 대한 주관적인 태도를 유형화한다.
- 휴먼서비스 전공분야 대학생의 죽음에 대한 주관적인 태도유형의 특성을 분석하고 기술한다.

## 용어정의

- 휴먼서비스 전공분야 대학생 : 인간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역으로 이윤보다 인간 삶의 질을 증진시키는 목적을 가진 분야의 학문(Carolyn, 2003)을 전공하는 학생으로서 본 연구에서는 간호학, 교육학, 사회복지학과 학생을 말한다.

## 연구 방법

### 연구설계

본 연구는 휴먼서비스 전공분야 대학생의 죽음태도를 파악하기 위해 Q-방법론을 이용하였다.

**표집방법**

● Q모집단 및 Q표본의 구성

Q모집단(Q-Population)은 간호사와 교사, 사회 복지사를 대상으로 죽음태도 구성에 대한 진술문을 추출하기 위하여 관련문헌 고찰과 개방형 질문지 그리고 개별 심층면담을 수행하였다. 연구대상자를 선정하는 전 과정에서 연구대상자의 경험에 관심을 갖게된 배경 및 연구목적에 충분히 설명하고 대상자의 동의와 다학제간 교수의 도움을 구한 후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자료수집을 시작하였다. 자료수집 내용은 연구이외의 목적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개인의 사적인 상황은 비밀로 유지되되 익명성을 보장한다는 점과 참여자가 원하면 면담 도중에 철회할 수 있음을 알린다음 면담을 진행하였다. 개방형 질문지를 이용한 자료 수집은 일 지역의 C대학교를 졸업한 간호사와 교사, 사회 복지사, 그리고 간호학, 교육학, 사회복지학과 학생 40명을 대상으로 2004년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실시되었으며 그 내용으로는 죽음에 대한 느낌이나 이미지는 어떤 것입니까? 나 자신과 죽음은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죽음을 잘 맞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떤 상황에서 죽음에 대한 불안을 느끼십니까? 삶과 죽음에 대한 자신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나는 어떻게 죽기를 원합니까? 등의 6문항이 포함되었다.

수집된 개방형 질문지를 분석하고 분류하는 과정에서 개방형 질문지에 덧붙여 좀 더 심도있는 자료를 수집하고자 개별 면담을 수행하였다. 개별면담은 일 지역의 C대학교를 졸업한 간호사, 교사, 사회 복지사 9명을 선정하여 위에 언급된 질문을 포함하여 죽음관련 교과내용, 학습방법, 학습자료, 죽음교육을 위한 준비 및 개선책 등에 대해 면담하였다. 이 외에도 죽음관련 선행연구와 전문서적, 국내외 전문잡지 등을 통해 얻은 자료를 합하여 총 178개의 Q모집단을 추출하였다. Q표본의 선정을 위하여 준비된 Q모집단을 놓고 죽음태도가 범주화될 때까지 여러 번 반복하여 읽으면서 분류하였으며 이를 다시 간호학과, 교육학과, 사회복지학과 교수 3인과 Q방법론 전문가 1인의 검토와 수정을 거쳐 최종 38개의 Q표본을 선정하였다.

● P표본(P-Sample)의 표집방법

Q방법론은 양적 연구와는 달리 사람이 변인이 되므로 P표본이 커지면 한 인자에 여러 사람이 편중되어 그 특성이 명

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소 표본이론에 근거하여 표본의 수를 간호학과, 교육학과, 사회복지학과 학생 총 42명으로 제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Q표본의 진술문이 38개이므로 이와 비슷한 표본의 경우에 가장 이상적이라는 점을 고려하였다(Dennis, 1986; Kim, 1996; Stephenson, 1982).

● Q표본 분류(Q-sorting) 및 자료분석 방법

Q표본의 분포도는 연구대상자들이 Q표본으로 선정된 38개의 진술문들을 자신의 의견의 중요도에 따라 9점 척도 상에 분류하여 정규분포에 가깝도록 강제분포 시키는 Q방법론의 원리에 따라 준비하였다. Q표본 분류는 Q표본을 먼저 읽은 후 긍정(+), 중립(0), 부정(-)의 세 부분으로 나눈 다음 긍정(부정)진술문 중에서 가장 긍정(부정)하는 것을 차례로 골라 바깥에서부터(+4, -4) 안쪽으로 분류를 진행해 하여 중립부분(0)에서 마무리하게 하였다. 이때 양끝에 놓인 3개씩의 진술문 6개에 대한 선택 이유를 면담을 통해 받아두었다<Table 1>.

Q분류과정 전에 개인적인 특성에 대해 기록하게 하였고 한 사람이 설문지를 작성하는 데는 30-40분이 소요되었다. 코딩은 가장 반대하는 경우를 1점으로 시작하여 중립인 경우 5점, 가장 찬성하는 경우에 9점을 부여하여 점수화 하였다.

자료 분석은 PC-QUANL Program을 이용하여 처리하였으며, 38개의 항목별 평균, 표준편차, 표준점수를 구하였다. 그 후 다시 38개의 항목을 P-표본을 축으로 하는 주요인분석(principal component factor analysis)방법을 이용하여 요인 분석하였다. 유형은 Eigen value 1.0이상을 기준으로 하여 요인 수를 다양하게 입력하여 산출된 결과 중 최선이라고 판단된 것을 선택하였다.

**연구 결과**

**Q유형의 형성**

QUANL PC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연구 대상자들의 죽음 태도의 주관성을 Q요인 분석한 결과 4개의 유형으로 나타났다. 이들 4개 요인은 전체 변량의 55.8%를 설명하고 있으며, 각 유형별 변량은 제 1유형이 38.3%, 2유형이 8.0%, 3유형이 5.5%, 4유형이 4.0%였다. 제 1 유형이 38.3%의 설명력을 가지므로 죽음태도에 대한 대상자의 인식을 가장 많이 설명하는 유형으로 볼 수 있다<Table 2, Table 5>.

<Table 1> Distribution of Q-sample card

	(disagree)				(neutral)			(agree)	
score	-4	-3	-2	-1	0	+1	+2	+3	+4
no. of card	3	4	4	5	6	5	4	4	3

<Table 5> Q-Samples and Z-Scores according to types

Q-Statement	Z-Score			
	Type 1 (N=18)	Type 2 (N=9)	Type3 (N=8)	Type4 (N=7)
1. Nobody knows what the death is before I really experience.	0.8	0.4	1.9	0.5
2. I fear when I think about dying.	-0.6	-2.0	-1.5	-1.3
3. Death with depression, sorrow and darkness can be expressed in black.	0.5	-0.1	-1.2	0.1
4. I would like to avoid dying if possible.	1.5	0.2	-1.5	-0.1
5. I think death means I am going to be nothing in this world.	-1.0	0.5	0.3	-1.1
6. Death indicates the end and the last terminal of life.	-0.4	0.6	0.2	-1.4
7. Dying means the completion of life.	-1.4	0.2	-0.3	-0.7
8. I am afraid and scared of death, while I am curious and mysterious of it.	-0.3	-0.1	1.1	1.1
9. I am trying to do my best whenever I think of dying.	1.0	1.1	0.3	1.5
10. We are going back where once we were after death.	-0.3	-0.2	-0.4	0.7
11. Death is a start for a new world.	-0.4	0.1	0.0	1.5
12. Death makes me feel sad and isolated, yet feel secure.	0.6	0.6	0.9	2.0
13. Eventually, I am going to die.	2.0	1.5	2.2	1.4
14. I have to accept death as fate in spite of denying it.	2.0	0.7	0.7	0.9
15. I feel I have nothing to do with death.	-0.5	0.2	-1.1	-1.0
16. I think of death whenever I have difficulties.	-1.5	-2.1	-0.5	-0.7
17. We have to prepare with death while we are living.	0.2	-0.1	1.0	1.1
18. Death is a part of life, and death is the other side of life.	0.4	1.0	1.2	1.5
19. Death means the separation me from someone dear to me.	0.8	0.8	1.1	0.4
20. I would share more generously when I think of death.	0.1	1.0	0.0	0.6
21. I would like to experience lots of things if possible before dying.	1.4	2.0	1.9	1.0
22. I wish many people around me feel sad of my death.	0.0	1.3	-0.5	-1.9
23. I feel anxious at the torture of illness to death.	0.6	-0.2	0.1	-0.3
24. The anxiety about death would exist in daily life.	-0.5	-1.3	0.3	-0.5
25. I don't want to face my death without anything done.	0.9	1.7	0.9	0.3
26. I wish I know when I am going to die.	-0.4	-1.2	-1.9	0.5
27. I am apprehensive of where I am going after my death.	-1.1	-1.0	-1.3	-0.8
28. I believe a good life ensures a good death.	0.7	1.4	-0.3	0.2
29. Death is the result of life and the report of what kinds life you had.	-1.5	-0.2	-1.2	-1.5
30. I would like to have a healthy life with people dear to me forever.	1.9	0.0	-0.7	0.5
31. I feel I am going to have happier life in next world after my death.	-1.0	-0.2	-0.6	-0.5
32. Death releases me from the difficult life.	-1.1	-1.3	-0.5	0.2
33. It is my fate to be born and to be died.	-0.1	-1.2	0.6	-0.5
34. Death is nothing but the end of organisms' life process.	-1.7	-1.3	0.6	-1.2
35. Everyone has to face own death alone.	0.0	-0.7	-0.6	0.1
36. Dying is painful, yet the pain is going away after death.	-0.6	-0.5	0.0	-0.2
37. I am confused of thinking that my corpse will be disappeared after death.	-1.2	-0.8	-1.2	-1.1
38. I worry that I am going to lose my dignity while I am dying.	-0.0	-0.8	-0.0	-1.4

<Table 2> Eigen values, variance, and cumulative percentage (N=42)

	Type 1	Type 2	Type 3	Type 4
Eigenvalues	16.1031	3.3497	2.2912	1.6865
Variance(%)	.3834	.0798	.0546	.0402
Cumulative	.3834	.4632	.5177	.5579

4개의 유형간의 상관관계는 <Table 3>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다. 이는 각 유형간의 유사성의 정도를 보여주는 것으로서 제 1유형과 4유형의 상관계수는 .893으로 다른 유형간의 상관관계보다는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Q방법론에서의 요인 간 상관관계는 R연구에서의 요인분석 방법과는 달리 각 요인간

의 완전한 독립성을 전제로 하지 않기 때문에 상관계수의 높고 낮음에 따른 요인추출 방법의 논란은 제기되지 않는다.

<Table 3> Correlations among types (N=42)

	Type 1	Type 2	Type 3	Type 4
Type 1	1.000			
Type 2	.194	1.000		
Type 3	.174	.282	1.000	
Type 4	.893	.213	.244	1.000

죽음태도의 유형별 특성과 해석

연구대상자의 구성은 제 1유형이 18명, 2유형 9명, 3유형 8명, 4유형 7명의 총 42명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유형 내에서 인자가중치(factor weight)가 가장 높은 사람일수록 그가 속한 유형의 전형적(prototype) 혹은 이상적(ideal)인 사람으로 그 유형을 대표함을 의미한다<Table 4>.

죽음태도에 관한 주관성을 유형별로 분석, 기술하기 위해 우선 각 대상자들이 긍정적 부정적 동의를 보인 진술문을 중심으로 유형별 특성을 기술하였고, 또한 개별 진술항목에 대

한 특정 유형의 표준점수와 나머지 유형의 평균 표준점수와 의 차이가 두드러지는 항목을 중심으로 분석, 설명하였다. 또한 각 유형의 특성을 해석할 때 Q 분류과정 당시 관찰 및 면담한 내용인 양극단의 의견과 인구사회학적 배경 등을 참조하였다. 이와 같은 유형분석 방법에 의해 산출된 대상자의 죽음태도에 관한 유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제 1유형 : 운명론적 수용형

<Table 4> Types, weights, demographic characteristics for P-samples

Type	Subject's No.	Factor weight score	Grade (years)	Major subject	Religion	Sex	Family Death experience
Type 1 (n=18)	VAR36	0.1174	4	Edu	None	Female	Yes
	VAR34	0.8784	2	Edu	Catholic	Female	Yes
	VAR15	0.6355	4	Nur	None	Female	Yes
	VAR21	0.4794	4	Soc	Catholic	Female	Yes
	VAR24	0.6381	2	Soc	Catholic	Female	Yes
	VAR 7	0.5596	3	Nur	Buddhism	Female	Yes
	VAR 5	0.5413	3	Nur	None	Female	Yes
	VAR 42	0.3657	3	Edu	Protestant	Male	Yes
	VAR 35	0.2076	2	Edu	Catholic	Female	Yes
	VAR 25	0.1974	2	Soc	Catholic	Female	Yes
	VAR 14	0.0894	4	Nur	Catholic	Female	Yes
	VAR 27	0.2804	2	Soc	Catholic	Male	Yes
	VAR 28	0.3123	2	Soc	Protestant	Female	No
	VAR 11	0.3488	2	Nur	None	Female	Yes
	VAR 17	0.1720	4	Nur	Catholic	Female	No
	VAR 4	0.4898	3	Nur	None	Female	No
	VAR 3	0.5449	3	Nur	Catholic	Female	Yes
	VAR 31	0.0841	3	Edu	Protestant	Female	No
Type 2 (n=9)	VAR22	1.3749	2	Soc	None	Female	No
	VAR39	0.5942	3	Edu	None	Female	No
	VAR 1	0.6457	3	Nur	None	Female	Yes
	VAR26	0.3545	2	Soc	Catholic	Female	Yes
	VAR 8	1.0289	2	Nur	None	Female	Yes
	VAR 2	0.4101	3	Nur	Catholic	Female	Yes
	VAR 9	0.8704	2	Nur	None	Female	Yes
	VAR33	0.2287	2	Edu	None	Female	No
	VAR32	0.2840	3	Edu	Protestant	Female	Yes
Type 3 (n=8)	VAR10	1.3438	2	Nur	Protestant	Female	Yes
	VAR38	0.2769	2	Edu	Buddhism	Male	No
	VAR29	0.3962	2	Soc	None	Female	Yes
	VAR40	0.8378	3	Edu	None	Female	No
	VAR20	0.2124	2	Soc	Buddhism	Male	Yes
	VAR30	0.4080	4	Edu	None	Female	Yes
	VAR37	0.9683	4	Edu	None	Male	No
	VAR12	0.3798	2	Nur	Catholic	Female	Yes
Type 4 (n=7)	VAR13	0.3057	4	Nur	None	Female	No
	VAR16	0.1710	4	Nur	Catholic	Female	Yes
	VAR41	0.4520	3	Edu	None	Female	No
	VAR23	0.2005	4	Soc	Protestant	Female	Yes
	VAR18	0.4145	2	Soc	None	Female	Yes
	VAR19	0.3071	2	Soc	None	Female	No
VAR 6	0.1878	3	Nur	None	Female	Yes	

\* Edu: Education, Nur: Nursing science, Soc: Social welfare

제 1유형에 속한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유형1에 속한 대상자는 총 42명 중 1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간호학과 8명, 교육학과 5명, 사회복지학과 학생 5명으로 구성되었으며 학년평균은 2.9년이였다.

유형 1이 강하게 동의를 보인 진술항목은 ‘죽음은 거부하고 싶지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숙명적인 것이다(Z값=2.00)’, ‘나는 건강하게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영원히 살고 싶다(Z값=1.92)’, ‘가능하면 죽음을 피하고 싶다(Z값=1.50)’였다. 반면 제 1유형이 가장 비 동의를 보인 항목은 ‘죽음은 유기체가 생명의 과정을 끝내는 것일뿐 별다른 의미가 없다(Z값=-1.73)’, ‘죽음은 삶에 대한 결과이며 얼마나 잘 살았나를 평가하는 성적표이다(Z값=-1.54)’, ‘죽는다는 것은 삶의 완성을 의미한다(Z값=-1.36)’로 나타났다. 여기서 Z값 1.0 이상인 진술문이 내용상 1유형으로 볼 수 없는 항목으로 같이 묶인다는 Q방법론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각 유형간의 주관성이 완전한 독립성을 전제로 하지 않고 의미의 해석을 통해 내부로부터 이해하는 접근방법이기 때문이다(Kim, 1990).

제 1유형이 다른 유형에 비해 특히 점수 차이를 보인 항목 즉, 타 유형과 비교하여 Z값 1.00 이상의 강한 동의를 보인 항목으로는 ‘가능하면 죽음을 피하고 싶다(Z값 차이=2.41)’, ‘나는 건강하게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영원히 살고 싶다(Z값 차이=2.30)’, ‘죽음은 거부하고 싶지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숙명적인 것이다(Z값 차이=1.28)’, ‘고통스럽게 아파하면서 죽어가는 것을 생각하면 불안하다(Z값 차이=1.05)’이었고 타 유형과 비교하여 Z값 -1.00 이상의 강한 비 동의를 보인 항목으로는 ‘죽는다는 것은 삶의 완성을 의미한다(Z값 차이=-1.60)’, ‘죽음은 또 다른 세계에서의 새로운 출발이다(Z값 차이=-1.30)’, ‘죽음은 삶에 대한 결과이며 얼마나 잘 살았나를 평가하는 성적표이다(Z값 차이=-1.19)’, ‘죽은 다음에 다른 세상에서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다(Z값 차이=-1.18)’, ‘죽음은 유기체가 생명의 과정을 끝내는 것일 뿐 별다른 의미가 없다(Z값 차이=-1.11)’이었다<Table 6>.

유형 1의 특성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인자가 중치가 높은 연구대상자 34명이 가장 동의를 보인 항목을 보

면 ‘직접 죽어보기 전에는 죽음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 ‘죽음은 언젠가는 나에게도 일어날 일이다’, ‘죽음은 거부하고 싶지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숙명적인 것이다’ 등의 항목으로 나타난 반면 가장 비 동의한 항목은 ‘내가 언제 죽을지 알 수 있다면 참 좋겠다’, ‘죽음은 삶에 대한 결과이며 얼마나 잘 살았나를 평가하는 성적표이다’, ‘죽을 때는 아프지만 죽으면 그 아픔은 사라진다’였다.

유형 1의 전형인 34명 대상자는 교육학과 2학년 학생으로서 죽음 상황은 자신을 무척 긴장시키며 사후 알려지지 않은 세계에 대해 걱정스럽고 두렵다고 했다. 나에게도 닥쳐올 죽음이지만 피하고 싶고 살아있는 동안은 뭔가 세상에 남기고 싶지만 죽는다는 생각이 들면 모든 게 허무함을 부인할 수 없다고 했으나 삶에 대한 강한 애착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더 불행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므로 죽음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유형 1에 속한 대상자들 모두는 조부모와 친구의 죽음을 경험한 자들로서 공통진술은 죽음이 삶의 결과라는 지표나 기준이 없듯이 죽음과 삶의 결과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꼭 죽어야만 삶이 완성되는 것도 아니라는 주장이다. 한편 죽음이란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일이며 거부한다고 해서 받지 않을 수는 없는 것이므로 살아있을 때 죽음에 대해 미리 준비한다면 두려움과 공포로 인한 시간 소비보다는 죽음 준비에 대한 시간으로 더 소중하게 보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였다. 따라서 제 1유형의 죽음태도에서는 한 인간의 죽음을 향한 존재론적 상실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측면의 죽음교육이 요구되고 있다.

● 제 2유형 : 실존적 현세 지향형

제 2유형에 속한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유형2에 속한 대상자는 총 42명 중 9명이었고 그중 간호학과 4명, 교육학과 3명, 사회복지학과 학생 2명으로 모두가 여학생으로 구성되었으며 학년평균은 2.4년이였다. 구성원의 38%가 가족이나 친지 등 죽음경험이 없는 그룹으로 나타났다.

유형2가 강하게 동의를 보인 진술항목은 ‘죽기 전에 많은

<Table 6> Type 1 Items and Z-scores greater or less than all others

	Q-statement	Z-score	average	difference
4.	I would like to avoid dying if possible.	1.50	-0.90	2.41
30.	I would like to have a healthy life with people dear to me forever.	1.92	-0.38	2.30
14.	I have to accept death as fate in spite of denying it.	2.00	0.71	1.28
23.	I feel anxious at the torture of illness to death.	0.64	-0.41	1.05
34.	Death is nothing but the end of organisms' life process.	-1.73	-0.63	-1.11
31.	I feel I am going to have happier life in next world after my death.	-1.01	0.17	-1.18
29.	Death is the result of life and the report of what kinds life you had.	-1.54	-0.35	-1.19
11.	Death is a start for a new world.	-0.37	0.93	-1.30
7.	Dying means the completion of life.	-1.36	0.24	-1.60

일들을 경험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Z값=1.96)', '이루어 놓은 것 없이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싫다(Z값=1.73)', '내가 죽은 후 주위 사람들이 많이 슬퍼할 수 있는 삶을 살고 싶다(Z값=1.31)였다. 반면 제 2유형이 가장 비 동의를 보인 항목은 '힘든 일이 생기면 쉽게 죽음에 대해 생각해 본다(Z값=-2.07)', '죽음을 생각하면 뒷골이 당길 만큼 공포를 느낀다(Z값=-2.04)', '일상 속에 죽음에 대한 불안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Z값=-1.25)이었다.

제 2유형이 다른 유형에 비해 특히 점수 차이를 보인 항목 즉, 타 유형과 비교하여 Z값 1.00 이상의 강한 동의를 보인 항목으로는 "내가 죽은 후 주위 사람들이 많이 슬퍼할 수 있는 삶을 살고 싶다(Z값 차이=1.85)', '이루어 놓은 것 없이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싫다(Z값 차이=1.20)', '죽음이라는 것이 나오는 멀게 느껴지는 것 같다(Z값 차이=1.17)', '죽음은 인생의 마침표이며 종착역이다(Z값 차이=1.16)이었고 타 유형과 비교하여 Z값 -1.00 이상의 강한 비 동의를 보인 항목으로는 '힘든 일이 생기면 쉽게 죽음에 대해 생각해 본다(Z값 차이=-1.31)', '나는 태어나서 살게 되었고 죽게 되어 죽을 뿐이다(Z값 차이=-1.11)이었다<Table 7>.

유형 2의 특성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인자가 중치가 높은 연구대상자 22인이 가장 동의를 보인 항목을 보면, '죽음은 내가 세상에서 사라져 무로 돌아가는 것이다', '죽음이라는 것이 나오는 멀게 느껴지는 것 같다', '죽기 전에 많은 일들을 경험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등의 항목으로 나타난 반면에 가장 비 동의를 보인 항목은 '죽음을 생각하면 뒷골이 당길 만큼 공포를 느낀다', '힘든 일이 생기면 쉽게 죽음에 대해 생각해 본다', '고통스럽게 아파하면서 죽어가는 것을 생각하면 불안하다'이었다. 유형 2의 전형인 22번 대상자는 친지나 주변에서 죽음을 경험해 보지 않은 사회복지학과 2학년 학생으로 죽고 나면 무의 상태가 되기 때문에 사는 동안 많은 것을 경험해야 후회가 없을 것이라고 하면서 일상생활을 하면서 보다 나은 미래를 꿈꾸고 살기 때문인지 죽음에 대한 공포를 느끼며 살지 않는다고 했다. 힘든 일, 역경을 딛고 이겨내는 것이 인생인데, 이로 인해 죽음을 생각하는 것은 살아

가는데 아주 불필요한 것이며 일상에서 죽음에 대한 불안이 있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다고 했다.

유형 2에 속한 대상자들의 공통진술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많은 일들을 경험해 보고 타인과 나누면서 자아 실현하는 것에 삶의 의미를 두었다. 죽음에 대해 미리 걱정하거나 공포를 느끼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며 삶이 허무해지고 현실생활을 방해하는 것일 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현재를 열심히 살고 하고 싶은 일을 다 해 놓고 죽는다면 보람된 인생일 것 같다고 했다. 한편 죽음으로 인해 나의 빈자리의 허전함을 남들이 느낄 수 있을 때 잘 산 인생이라 할 수 있고 나의 죽음을 타인이 슬퍼할 때 아름답고 후회 없는 삶이라고 하여 죽음의 가치를 자기업적 성취나 타인의 평가 기준에 의지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 제 3유형 : 사후세계 불확실형

제 3유형에 속한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유형3에 속한 대상자는 총 42명 중 8명을 차지하였으며 그 중 남학생 3명이 포함되었다. 구성원을 보면 간호학과 2명, 교육학과 4명, 사회복지학과 학생 2명으로 이루어졌으며 학년 평균은 2.6년이었고 전체 구성원의 50%가 종교가 없는 사람이었다.

유형3이 강하게 동의를 보인 진술항목은 '죽음은 언젠가는 나에게도 일어날 일이다(Z값=2.16)', '직접 죽어보기 전에는 죽음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Z값=1.91)', '죽음은 무섭고 두려운 존재이기도 하지만 궁금하고 신비스러운 생각이 든다(Z값=1.15)이었다. 반면 제 3유형이 가장 비 동의를 보인 항목은 '내가 언제 죽을지 알 수 있다면 참 좋겠다(Z값=-1.93)', '죽은 후 나는 과연 어디로 가게 될지 불안하다(Z값=-1.35)', '죽음은 우울과 슬픔, 어두움을 상징하는 검은색으로 표현된다(Z값=-1.18)이었다.

제 3유형이 다른 유형에 비해 특히 점수 차이를 보인 항목 즉, 타 유형과 비교하여 Z값 1.00 이상의 강한 동의를 보인 항목으로는 '직접 죽어보기 전에는 죽음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Z값 차이=2.18)', '죽음은 유기체가 생명의 과정을 끝내는

<Table 7> Type 2 Items and Z-scores greater or less than all others

	Q-statement	Z-score	average	difference
22.	I wish many people around me feel sad of my death.	1.31	-0.54	1.85
25.	I don't want to face my death without anything done.	1.73	0.53	1.20
15.	I feel I have nothing to do with death.	0.20	-0.98	1.17
6.	Death indicates the end and the last terminal of life.	0.64	-0.52	1.16
21.	I would like to experience lots of things if possible before dying.	1.96	0.98	0.98
24.	The anxiety about death would exist in daily life.	-1.25	-0.41	-0.84
2.	I fear when I think about dying.	-2.04	-1.17	-0.87
33.	It is my fate to be born and to be died.	-1.17	-0.06	-1.11
16.	I think of death whenever I have difficulties.	-2.07	-0.76	-1.31

것일 뿐 별다른 의미가 없다(Z값 차이=1.57)', '나는 태어나서 살게되었고 죽게 되어 죽을 뿐이다(Z값 차이=1.01)'의 3항목 이었고 타 유형과 비교하여 Z값 -1.00 이상의 강한 비 동의를 보인 항목으로는 '내가 언제 죽을지 알 수 있다면 참 좋겠다 (Z값 차이=1.37)', '아름다운 삶은 아름다운 죽음을 얻을 수 있는 길이다(Z값 차이=1.35)', '죽음은 우울과 어두움을 상징하는 검은색으로 표현된다(Z값 차이=1.31)'의 3개 항목이었다 <Table 8>.

유형 3의 특성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인자가 중치가 높은 연구대상자 10명이 가장 동의를 보인 항목을 보면 '직접 죽어보기 전에는 죽음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 '죽음은 언젠가는 나에게도 일어날 일이다', '죽기 전에 많은 일들을 경험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등의 항목으로 나타난 반면에, 가장 비 동의를 한 항목은 '내가 언제 죽을지 알 수 있다면 참 좋겠다', '죽음은 삶에 대한 결과이며 얼마나 잘 살았나를 평가하는 성적표이다', '죽은 다음에 다른 세상에서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다'였다. 유형 3의 전형인 10명 대상자는 간호학과 2학년 학생으로서 종교를 가지고 있으나 죽은 다음에 다음 세상에서 행복하게 산다는 것은 다음 세상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것이고 행복하게 살수 있다는 것도 주관적인 것이고 인간이 언제 죽을지 안다면 참 불행한 일이며 죽음으로 삶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은 부분만을 보고 전체를 판단하는 것과 같다고 하여 종교적 신념과 내세관의 차이를 보여주었다.

유형 3에 속한 대상자들의 공통진술은 죽음은 누구나 한번 씩 경험하는 것이지만 죽어보지 않고선 그 실체를 모르며 단지 예측할 뿐이라고 하였다. 죽음이 언제, 어떻게 찾아올 줄

모르는데 죽음이 삶의 완성이나 삶의 결과를 평가하는 성적표는 될 수 없으며 또 죽음을 미리 안다고 더 잘 준비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으며 각자가 스스로 걸어야 하는 외로운 길이라고 하였다. 한편 죽음이 무엇이든 간에 죽음자체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야한다는 사실이 가장 두렵다고 하면서 영의 상태로 곁에 있다하여도 눈에 직접 보이지 않는 한 죽음은 하나의 이별일 뿐이라고 하여 무형의 세계에 대한 불확실성을 보여주었다.

● 제 4유형 : 생사 분리-연결형

제 4유형에 속한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유형4에 속한 대상자는 총 42명 중 7명을 차지하였으며 모두 여학생으로 이루어졌다. 구성원을 보면 간호학과 3명, 교육학과 1명, 사회복지학과 학생 3명으로 이루어졌으며 학년평균은 3.1년이었고 종교가 없는 사람이 7명 중 5명이었고, 구성원의 40%가 가족이나 친지 등 죽음경험이 없는 그룹으로 나타났다.

유형4가 강하게 동의를 보인 진술항목은 '죽음은 슬픔과 단절의 느낌을 주지만 평온한 안식의 느낌도 준다(Z값=2.02)', '죽음을 생각하면 더 잘 살려고 노력하게 된다(Z값=1.51)'이었다. 반면 제 1유형이 가장 비 동의를 보인 항목은 '내가 죽은 후 주위 사람들이 많이 슬퍼할 수 있는 삶을 살고 싶다(Z값=-1.90)'이었다.

제 4유형이 다른 유형에 비해 특히 점수 차이를 보인 항목 즉, 타 유형과 비교하여 Z값 1.00 이상의 강한 동의를 보인 항목으로는 '내가 언제 죽을지 알 수 있다면 참 좋겠다(Z값 차이=1.42)', '죽음은 고난의 삶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다(Z값

<Table 8> Type 3 Items and Z-scores greater or less than all others

	Q-statement	Z-score	average	difference
1.	Nobody knows what the death is before I really experience.	1.91	-0.27	2.18
34.	Death is nothing but the end of organisms' life process.	0.56	-1.01	1.57
24.	The anxiety about death would exist in daily life.	0.33	-0.68	1.01
8.	I am afraid and scared of death, while I am curious and mysterious of it.	1.15	0.30	0.85
13.	Eventually, I am going to die.	2.16	1.54	0.62
27.	I am apprehensive of where I am going after my death.	-1.35	-0.92	-0.43
3.	Death with depression, sorrow and darkness can be expressed in black.	-1.18	0.13	-1.31
28.	I believe a good life ensures a good death.	-0.31	1.04	-1.35
26.	I wish I know when I am going to die.	-1.93	-0.56	-1.37

<Table 9> Type 4 Items and Z-scores greater or less than all others

	Q-statement	Z-score	average	difference
26.	I wish I know when I am going to die.	0.46	-0.96	1.42
32.	Death releases me from the difficult life.	0.23	-0.96	1.19
12.	Death makes me feel sad and isolated, yet feel secure.	2.02	1.09	0.93
9.	I am trying to do my best whenever I think of dying.	1.51	1.05	0.46
22.	I wish many people around me feel sad of my death.	-1.90	-0.01	-1.89



차이=1.19)'이었고 타 유형과 비교하여 Z값 -1.00 이상의 강한 비 동의를 보인 항목으로는 '내가 죽은 후 주위 사람들이 많이 슬퍼할 수 있는 삶을 살고 싶다(Z값 차이=-1.89)'이었다 <Table 9>.

유형 4의 특성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인자가 중치가 높은 연구대상자 41명이 가장 동의를 보인 항목을 보면 '죽음은 슬픔과 단절의 느낌을 주지만 평온한 안식의 느낌도 준다', '죽음은 또 다른 세계에서의 새로운 출발이다', '죽음은 무섭고 두려운 존재이기도 하지만 궁금하고 신비스러운 생각이 든다'의 항목으로 나타난 반면, 가장 비 동의한 항목은 '내가 죽은 후 주위 사람들이 많이 슬퍼할 수 있는 삶을 살고 싶다', '나는 태어나서 살게 되었고 죽게 되어 죽을 뿐이다', '죽음은 삶에 대한 결과이며 얼마나 잘 살았나를 평가하는 성적표이다'였다. 유형 4의 전형인 41명 대상자는 교육학과 3학년 여학생으로 이승과 저승을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분리하여 이원화했으며 중요도에 대해서는 둘 다 똑같은 비중을 두었다. 이 세상에서 삶을 마치면 저 세상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새로운 세계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한번 이승의 삶을 살고나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일 이므로 죽음을 생각하면 더 열심히 살아서 후회 없는 생을 마감하고 편안하게 저승의 삶으로 옮겨갈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유형 4에 속한 대상자들의 공통진술은 죽음은 삶의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이며 죽은 후에도 계속 이어지는, 또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문이라고 생각하기에 자연스런 삶의 일부이라고 여기며 원래 인간은 무의 상태에서 왔기 때문에 신체도 역시 허상임을 피력했다. 따라서 지금이 실제이고 죽은 다음이 허상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고 하였다. 어쩌면 죽은 다음에 꿈에서 깨어난 느낌을 받을지도 모른다고 하면서 인간은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인 죽음을 향해 걸어가고 있다고 하였다. 유형4의 대상자들은 죽음을 두려움의 대상이면서도 영혼의 세계인만큼 이 세상과는 다른, 한편으로는 기다림의 대상일 수도 있는 신비스러움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죽음준비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 논 의

최근 국내연구에서 죽음의식 및 태도에 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나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학문을 전공한 학생들의 죽음의식이나 태도를 연구한 부분은 아직도 미흡하다. 죽음에 관한 국외 연구들의 경우, 이미 임종과 죽음교육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나아가 교과과정 개발과 죽음교육에 관한 연구로 방향설정을 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간호학과, 교육학과, 사회복지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휴먼서비스 전공분야 대학생의

죽음태도 유형과 주관적 구조 및 특성을 규명하여 죽음관련 교과목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의 기초 자료를 제시해 줄 수 있다는데 의의가 있다. 대학생의 죽음태도 유형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된 본 연구결과 4개의 태도유형이 제시되었다.

유형 1의 대상자가 인식하는 죽음태도 유형은 인간의 유한성을 인정하지만 죽음의 사실은 거부하고 피하고 싶어하는, 보편적 진리와 개별적 바램 사이의 마찰과 조율의 과정에서 갈등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죽음은 삶의 한 과정으로 개인적이면서도 숙명적 실제이기에 원하지 않은 자신의 죽음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한다면 마지막 순간에 불행한 죽음을 맞이하지 않기 위해 미리 죽음에 대한 준비가 필요할 것을 강조하여 '운명론적 수용형'으로 명명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제 1유형 대상자들은 죽음을 삶에 대한 패배, 생의포기, 생존의 위기인 절망적인 존재로 인식하여 기피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오늘날 젊은 대학생들이 죽음의 불가피성에 직면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는 풍조를 보여주며 죽음에 대해 비판적이고 거부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음을 말해준다.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인생의 부분으로 볼 때 죽음을 어떻게 수용하며 다루어야 하는가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일 뿐 아니라 죽음과 항상 접해 있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미래의 전문직 종사자가 될 학생들로서는 중요한 주제가 된다.

Kim(2003)은 죽음이 단순히 삶의 종말이나 끝으로서가 아니라 삶의 한가운데 존재하면서 일상생활을 통해 인간존재에 깊이 파고든다는 의미로 이해하고 있다. 질병, 고독, 실패, 노화, 실직 등은 삶 자체에 실존하는 죽음의 한 형태로 볼 수 있으며, 인간은 여러 형태의 부분적이고 간접적인 죽음을 통하여 마침내 궁극적인 죽음에 이르게 되며, 죽음의 한계에 나름대로의 의미를 부여하게 된다. 그러나 오늘날 죽음의 문제는 많은 사람들에 의하여 기피되고 점차 개인과 사회의식으로부터 밀려나게 되었는데 이는 죽음을 실패로 보고, well-being을 인간의 궁극적 목표로 추구하는 사회적 의식구조로 인해 간접적으로는 죽음과 맞부딪치고 있으면서도, 자기에게 닥쳐올 현실적 가능성으로서 절실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으며 이런 사실을 억압하고 기피하고자 한다(Choi, 1996; Kim, 2002).

한편 유형 1의 대상자들은 죽음을 두렵고 생각조차 하기 싫은 대상으로 인식하지만 단순히 무시하고 억압할 수만은 없는 사실임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Chung과 Kim(1991)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죽음은 피하고 싶다가 40%, 죽음을 생각하면 두렵다고 답한 사람이 58%로 나타나 본 연구의 유형1과 같은 맥락을 이룬다고 보여 진다. 의과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현상학적 연구에서 (Wear, 2002) 죽음을 실패로 생각하는 3가지 주제는 생의 종말에 대한 불확실성, 생의 말기 대상자 관리에서 지도와 역할

모델의 부재, 교육과정에서의 사려 깊고 통합적인 교과과정의 부족을 지적했다. 유형 1의 대상자들을 위해서는 죽음에 대한 학생 자신의 신념이나 철학을 통해 올바른 죽음관을 형성하고 내적 체험을 통해 죽음에 대한 이해가 삶의 이해, 즉 인간 존재에 대한 이해로 발전하는 가치의식의 함양을 지양하는 심도 있는 다학제간 죽음교육 프로그램과 좋은 역할모델을 위한 교수개발이 요구된다.

유형 2의 대상자가 인식하는 죽음태도 유형은 학창시절의 젊은이들이 이룩해야 할 발달과정에서 경험하는 성취와 자아 실현이라는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미리부터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목표달성에 방해요소가 되므로 죽음보다는 삶에 더 비중을 두고 현실을 중시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실존적 현세 지향형'이라 명명하였다. 제 2유형은 죽음은 유한한 것이고 존재가 비존재로 되는 것이며 존재의 근거가 되는 시공의 개념이 없어지는 것으로 인식하여 현세의 삶을 마치고 무의 상태에서 자연의 일부로 환원되는 것으로 보았으며, 죽음을 삶의 마지막으로 보는 종말관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이 유형에 속한 대상자들은 유한성이 주는 무의미성으로 인해 내세 지향적 가치보다는 현세적 가치에 의미를 부여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이는 한국의 무교적 영향 속에서 내세를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현세적인 삶에 긍정성을 부여하는 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라 여겨진다(Kim, 2001). 따라서 현세의 많은 경험을 통해 자아성취와 실현에 도움을 주는 가치에 우선순위를 두었으며, 죽음에 대한 생각과 준비는 현실생활과 자기완성을 방해하는 것일 뿐이므로 죽음보다는 삶을 생각하고 무형보다는 유형을 중시하는 가치의식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Ahn(1988)이 청소년기는 죽음을 좌절과 패배로 인식하여 현세에 치중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연구보고와 일치하고 있다.

죽기 전에 많은 일들을 경험해 보고 싶고, 이루어 놓은 것 없이 죽음을 맞이하기는 싫으며 죽음이 나와는 멀게 느껴진다고 표현한 유형2의 대상자들은 청소년기의 발달과정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Jung(1964)은 인간의 출생이 의미가 있듯이 죽음도 의미가 있다고 보았는데, 인생은 어떤 궁극에로의 준비로 보통 인간은 인생의 상승기를 거쳐 정상에 이르면 거기서 멈추어 서는데 즉 자기 실현이 이루어지면 그것이 바로 자신의 죽음으로서 죽음은 자기의 실현을 의미한다고 하였다(Lee, 1979). 따라서 출세와 성공, 업적 쌓기, 명예 등 현세적 틀에서 최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유형 2의 대상자들을 위해서는 유형과 무형, 소유와 존재의 새로운 가치균형을 발견하는 삶으로의 방향전환이 요구되며 성숙된 자아완성의 함양을 지양하는 심도 있는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된다.

유형 3의 대상자가 인식하는 죽음태도 유형은 경험하지 않

은 사실에 대해서는 누구도 알 수 없으며 죽음이 보편적이고 필연적 현상임은 인정하지만 아직은 경험 밖의 미지의 세계이므로 신비스럽고 궁금하다고 하여 '사후세계 불확실형'이라 명명하였다. 제 3유형은 직접 죽어보기 전에는 그 실체를 알 수 없다고 하나 일상 속에 죽음에 대한 불안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고 느끼는 그룹이다. 현실을 살면서도 내세에 대한 확신이 없고 그러면서도 아름다운 삶이 아름다운 죽음을 맞을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진 유형으로 어디에도 안주할 수 없는 불편함을 엿볼 수 있다. 이는 사후세계가 있다고 믿는 것은 환상이라고 응답한 청소년이 37%, 죽음 이후의 사후세계를 믿지만 두렵다고 응답한 사람이 58%로 나타난 Chung과 Kim(1991)의 연구와 유사하다. 사후생명의 인식여부는 현세를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관련이 있다는 Kim(2001)의 주장은 인간을 대상으로 직업을 가지게 될 간호학과, 교육학과, 사회복지학도로서는 직업적으로 만나게 될 대상자들의 죽음인지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죽음에 대한 불안은 자신의 내적으로 해결 안 된 비애나 허무가 외적인 요인에 의해 촉발되어 증가한다고 생각할 수 있으며(Lee, Kim, Na, Kwon, Kim & Min, 1983), 존재론적인 내세가 확보되지 않은 사람이 갖는 비관론적인 생사관은 임종을 맞는 대상자나 불치병을 가진 대상자, 청소년, 노인대상자를 다루는 전문직업인에게는 힘든 부적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죽음불안을 교육과 경험을 통해 원만히 처리할수록 죽음불안이 감소한다는 보고(Denton & Wisenbaker, 1977; Mallory, 2003; Miles, 1980)와 죽음인지와 죽음불안의 상관관계를 밝힌 연구(Lee et al., 1983)는 일맥상통하고 있으며, 대학생들에게 죽음학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습득시킬 때 죽음불안을 감소시켜 대상자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따라서 유형 3의 대상자를 위해 죽음불안을 바람직하게 해소시킬 수 있는 대처방안을 모색함과 더불어 한국적 문화에 적합한 대학교육과정에서의 죽음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유형 4의 대상자가 인식하는 죽음태도 유형은 죽음을 통해 이승과 저승의 삶이 분리되면서 한편으로는 죽음을 통해 새로운 세계로 옮겨가는 삶이라고 보아 죽음대비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유형으로 '생사 분리-연결형'이라 명명하였다. 제 4유형은 죽음은 슬픔과 단절의 느낌을 주지만 평온한 안식의 느낌도 준다. 죽음은 삶의 마침표가 아니며 쉼표로 비유하고 삶의 일부분으로서 또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자연스런 이동으로 보았다. 삶과 죽음을 단절로 이해하게 되는 일반적 이유를 Son(1996)은 죽음이라는 실체의 관찰과 실증이 불가능하고 인간의 의식적 경험을 초월해 있으며, 현세적 삶에 집착된 결과로 보았는데, 이 유형의 대상자들은 죽음을 단절로 보는 한편 새로운 삶의 시작을 알리는 전환점으로 보는 견해를 지님

으로써 Son(1996)의 견해보다는 포괄적 의미를 함축한다. 제 4유형이 다른 유형에 비해 차이를 보인 항목으로는 '내가 언제 죽을지 알 수 있으면 참 좋겠다'와 '죽음은 고난의 삶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다'였는데 이는 문제해결이 삶의 현실 속에서 전혀 보이지 않을 때 죽음은 가장 실제적인 해답이 되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마지막 위안으로 보는 견해와 같다. 이와 같은 사고는 한국 등 동양인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속죄론적 사망관으로 Jung(1974)에 의하면 유불사상에 기초를 둔 한국적 풍토에서 살고 있는 한국대학생의 24%에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Chung과 Kim(1991)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자살에 대한 태도를 묻는 항목 중 죽음을 삶의 고통에서의 해방으로 보는 관점이 35%로 나타났으며 가치관과 자살에 대한 태도, 죽음에 대한 수용태도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이는 Ahn(1988)이 청소년기는 죽음을 삶으로부터의 도피적, 피로움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인식한다고 보고한 연구와 유사하다.

근래 한국사회에서도 청소년 자살율이 7.8%(Ministry of Health and Social Affairs, 2003)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기의 가치관 정립의 부재와 정체성 상실, 기성세대의 역할모델 부재 등은 자살 시도의 영향인자로 보여 진다. 이러한 현상은 죽음을 인위적으로 양산(量産) 가능한 것으로 만듦으로써 삶의 사회적 공동체를 근원적으로 반생명적인 분위기로 증폭할 위험성이 크다고 본다. 따라서 유형 4의 대상자들을 위해서는 죽음이 단순한 개별적 사건을 넘어 사회적 현상이라는 맥락 안에서 죽음을 공유하는 책임성에 주목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휴먼서비스 전공분야 대학생의 죽음태도의 구조와 유형을 분류하고 파악하여 현 시대의 깊이 있는 인간이해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졸업 후 전문직 수행에 도움을 주기위해 양질의 죽음관련 교과목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의 기초 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대학생들의 죽음태도 연구는 Q-방법론을 적용한 조사연구이며 관련 문헌고찰과 개방형 질문지 그리고 개별 면담을 통해 수집된 항목들을 종합 분석하여 최종 38개의 Q표본 진술내용을 대구 C대학교 간호학과, 교육학과, 사회복지학과 학생 42명에게 분류하도록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PC-QUANL Program으로 요인분석 하였고, 분류된 죽음태도 유형은 모두 4가지(운명론적 수용형, 실존적 현세지향형, 사후세계 불확실형, 생사 분리-연결형)로 나타났으며 이들 유형에 의해 설명된 전체 변량은 55.8%였다.

제 1유형은 '운명론적 수용형'으로 죽음을 삶의 실패로 인식하여 회피하고 싶지만 언젠가는 마주쳐야만 하는 죽음의

보편성과 필연성을 거부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사실을 인정하는 그룹으로 확인되었다. 제 2유형은 '실존적 현세지향형'으로 죽음을 통해 인간 존재는 무로 돌아간다는 종말론적 사고를 지니고 있으며, 유한성이 주는 무의미성으로 인해 내세 지향적 가치보다는 현세지향적 가치 추구에 전력 투신하는 유형으로 나타났다. 제 3유형은 '사후세계 불확실형'으로 직접 경험해 보기 전에는 죽음의 실체를 알 수 없다고 주장하나 삶 속에 죽음에 대한 불안이 항상 내재함을 인식하고 있어, 진정한 자아추구 과정에서 편치 않은 정서와 현세적 삶에 부정적 반응을 경험하는 그룹으로 표현되었다. 제 4유형은 '생사 분리-연결형'으로 삶과 죽음을 철저한 단절로 인식하는 한편 죽음 저편에는 현세적 삶에서 경험하지 못한 평온과 안식의 새로운 지평이 열릴 것이라는 기대를 지닌 그룹으로 죽음이 최상의 실제적 해답이 되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마지막 위안이라는 견해를 보여 주는 유형으로 확인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통하여 대학생들을 위한 죽음교육과목 콘텐츠와 교육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수행할 때에는 학습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각 유형별 접근이 차별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시된다. 즉 운명론적 수용형의 특성을 지닌 대상자들에게는 학생 자신의 신념이나 철학을 통해 올바른 죽음관 형성과 내적 체험을 통한 삶과 죽음, 인간실존에 대한 통합적 이해를 도모하는 심도 있는 다학제간 죽음관련 교육내용 및 교수방법의 개발이 시급하며, 실존적 현세지향형에 속하는 대상자들에게는 존재와 소유의 의미 구별과 가치균형의 습득을 위해 죽음교육에서 교훈적이고 이론적 접근보다는 사례접근을 통한 능동적이고 경험적인 교육의 필요성이 제시된다. 사후세계 불확실형에서는 졸업 후 전문직업적으로서 만나게 될 대상자들의 죽음인지도에 긍정적 영향을 제공하기 위한 선행교육으로 죽음학에 대한 다학제간 통합적 지식습득과 죽음불안의 바람직한 해소방안을 모색함과 더불어 한국적 사고와 문화에 적합한 대학교육과정에서의 죽음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생사 분리-연결형 대상자들을 위해서는 죽음이 단순한 개별적 사건을 넘어 사회적 현상이라는 맥락 안에서 죽음을 공유하는 책임성 교육에 주목할 필요성이 제기되며, 올바른 죽음 개념 정립과 더불어 청소년 자살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따라서 죽음의 윤리적 측면과 한국사회의 문화적 측면을 고려한 건전한 죽음문화 정착과 자살의 사회적 문제 해결에 관한 심도있는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죽음태도 유형은 죽음에 관한 포괄적 인간이해의 방향 제시와 죽음관련 교과목 및 죽음준비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학습자들이 죽음에 대한 보다 통합적이고 긍정적인 관점을 획득하여 건전한 죽음문화를 체득하고, 졸업 후 임상과 지역사회 현장에서 전문직 수행능력을 높이는 데 기초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연구는 죽음 관련 현장에서 대상자와 그 가족들이 겪는 아픔을 공감하고, 죽음 앞에서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을 극복하여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자신감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임상현장에서 실제적으로 필요한 주문식 교육을 하여 임상과 교육의 일원화로 그 효과성을 높이게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분류된 죽음태도 구성의 유형에 대한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 죽음태도 구성의 유형에 따라 차별화된 적절한 죽음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을 제언한다.
- 연구대상자를 다양하게 표집하여 죽음태도 구성과 유형에 관한 반복연구를 제언한다.
- 휴먼서비스 전공분야 대학생을 위한 죽음학 교육과정 개발을 제언한다.

## References

- Ahn, H. R. (1988). Effects toward death attitude for the elders and development death preparation program. *Korean J of Psychiatric Nursing*, 8(1), 44-68.
- Beak, S. H., Lee, M. A., & Kim, I. H. (2001). A study of perceptual change towards death of nursing students. A comparison before and after hospice care. *Korean J. of Fundamental Nursing*, 8(3), 153-169.
- Carolyn, L. V. (2003). Services: Its psychological aspects and psychospiritual context. *Rehabilitation Counselling Bulletin*, 46(2), 115-119.
- Choi, O. S. (1996). Death problem as an issue of modern education. *J of Korean Educ*, 14(2), 91-113.
- Chung, S. K., & Kim, C. K. (1991). A relational study on attitudes toward death between life satisfaction and values of juveniles. *The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Health Education*, 8(2), 61-73.
- Cruse, D. (1993). Death education coverage in selected health education books and periodicals. *Health Values*, 7(1), 15-18.
- Dennis (1986). Q-Methodology; Relevance & application to nursing research. *A.N.S.*, 8(3), 238-248.
- Denton, J. A. & Wisenbaker, V. B. (1977). Death experience and death anxiety among nurses and nursing students. *Nurs Res*, 26(1), 61-64.
- Jung, C. G. (1964). *Man and his symbols*. New York, Doubleday.
- Jung, S. M. (1974). *Korean culture and education: A viewpoint of death and education of Koreans*, Ewha University Press, Seoul, 141-174.
- Kim, E. M. (2001). *Understanding of Death for Koreans and Application for Hospice in Chriatiani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Jangro theological college, Seoul.
- Kim, H. G. (1990). *Q-Methodology*. Seoul: Lecture Paper of Dept. of Nursing, Medical School, Seoul University.
- Kim, H. G. (1996). *Q-methodology*. Unpublished manuscript. Wonkwang-Health Science College.
- Kim, M. A., & Lim, S. H. (2002). A Q-study on death among nursing students. *Keimyung Nursing Science*, 6(1), 43-54.
- Kim, S. H. (2002). An educational philosophical meaning of death education. *J of Korean Religious Educ*, 15, 205-223.
- Kim, Y. G. (2003). *Memento Mory, Remember Death*. Seoul : Gungri Publishing Company.
- Kingma, R. (1994). Revising death education. *Nurse Educ*, 19(5), 15-15.
- Lee, B. Y. (1979). *Analitical psychology*. Seoul: Ilzogac, 172-173.
- Lee, K. H., Kim, H. S., Na, C., Kwon, H. J., Kim, S. H., & Min, B. K. (1983). A study on the death awareness among health care personnels. *Journal of RIMSK*, 15(3), 174-186.
- Mallory, J. L. (2003). The impact of a palliative care educational component on attitudes toward care of the dying in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J Prof Nurs*, 19(5), 305-312.
- Matzo, M. L., Sherman, D. W., Penn, B., & Ferrell, B. R. (2003). The end-of-life nursing education consortium (ELNEC) experience. *Nurse Educ*, 28(6), 266-270.
- Matzo, M. L., Sherman, D. W., Lo, K., Egan, K. A., Grant, M., & Rhome, A. (2003). Strategies for teaching loss, grief, and bereavement. *Nurse Educ*, 28(2), 71-76.
- Miles, M. S. (1980). The effects of a course on death and grief on nurse's attitudes towards dying patients and death. *Death Educ*, 4(3), 245-260.
- Ministry of Health and Social Affairs in Korea. (2003). <http://www.nso.go.kr>
- Son, S. H. (1996). *Understanding of Death in Christianity and Korean Shamanism*.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imryae University, Seoul.
- Stephenson (1982). "Q-Methodology, interbehavioral psychology and quantum theory", *The Psychological Record*, 3, 238-248.
- von Gunten, C. F. (1996). Why I do what do. In L. Blank (Ed.), *Caring for the dying: Identification and promotion of physician competency-educational resource and personal narratives*. Philadelphia: American Board of Internal Medicine.
- Wear, D. (2002). "Face-to face with it" : medical student's narratives about their end-of-life education. *Acad Med*, 77(4), 271-277.
- Woo, J. G. (1998). *An existential study for death educa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rea University, Seoul, Korea.

## Types of Students' Death Attitudes Majoring in Human Service Area : Q-Methodological Approach\*

Jo, Kae-Hwa<sup>1)</sup> · Lee, Hyun Ji<sup>2)</sup> · Lee, Yun Ju<sup>3)</sup>

1)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School of Medicine,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2)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3) Department of Education,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death attitudes of students majoring in the human service area, such as nursing science, education, and social welfare. **Method:** The Q-methodology which provides a method of analyzing the subjectivity of each item was used. The 38 selected Q-statements from each of 42 subjects were classified into a shape of normal distribution using a 9 point scale. The collected data was analyzed using a QUANL PC program. **Result:** Four types of death attitudes for research subjects in nursing, education, and social welfare areas were identified. Type I is fatalistic admission, Type II is pursuit of existential life, Type III is uncertainty of life after death, and Type IV is separation-connection between life and death. **Conclusion:** The results of the study indicate that different approaches of death educational programs are recommended based on the four types of death attitudes.

**Key words :** Human service, Death, Attitude, Q-methodology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Korea Research Foundation Grant(KRF-2004-076-E00006)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Jo, Kae Hwa

Department of Nursing, School of Medicine,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3056-6 Daemyung 4 dong, Namgu, Daegu 705-718, Korea

Tel: +82-53-650-4825 Fax: +82-53-621-4106 E-mail: jokw@cu.ac.kr